

Session 7 Jonathan and David's Covenant and Plan (1 Sam. 20) 제 7 장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 그리고 계획 (삼상 20 장)

I. DAVID MET WITH JONATHAN (1 SAM. 20:1-3)

다윗이 요나단을 만남 (삼상 20:1-3)

- A. David fled from Ramah to meet Jonathan in Gibeah (20:1-3). Instead of staying at Ramah with Samuel, even after the Lord released supernatural tokens of His favor, David returned to Gibeah to talk to Jonathan to determine if Saul's recent encounter with the Spirit changed his view of David.

다윗은 기브아에서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 라마를 떠났다 (20:1-3).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보이신 후, 다윗은 라마에서 사무엘과 함께 머무는 대신 기브아로 돌아가서 요나단에게 물어 사울이 최근에 성령님을 강하게 만난 것으로 인해 다윗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알고자 했다.

¹Then David fled from Naioth in Ramah, and went and said to Jonathan, "What have I done? What is my iniquity, and what is my sin before your father, that he seeks my life?"²So Jonathan said to him, "By no means! You shall not die! Indeed, my father will do nothing either great or small without first telling me. And why should my father hide this thing from me? It is not so!"³Then David took an oath again, and said, "Your father certainly knows that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and he has said, 'Do not let Jonathan know this, lest he be grieved.' But tru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r soul lives, there is but a step between me and death." (1 Sam. 20:1-3)

¹ 다윗이 라마 나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²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나라 ³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 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삼상 20:1-3)

- B. *You shall not die*: Jonathan and Saul both knew David would be king (20:15; 23:17; 24:20).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나단과 사울은 둘 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다 (20:15; 23:17; 24:20).

¹⁷"...you shall be king over Israel, and I shall be next to you. Even my father Saul knows that." (1 Sam. 23:17)

17 ...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삼상 23:17)

- C. *A step between me and death*: David did not agree with Jonathan's naïve view of Saul. This is the first time we see David struggling with strong fears.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리라: 다윗은 사울에 대한 요나단의 순진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처음으로 강한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II. JONATHAN'S PROMISE TO HELP DAVID (1 SAM. 20:4-9)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것을 약속함 (삼상 20:4-9)

- A. Jonathan’s full commitment to help David (20:4-9)

다윗을 온전히 돕겠다는 요나단의 결심 (20:4-9)

⁴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yourself desire, I will do it for you.*” ⁵And David said to Jonathan, “*Indeed tomorrow is the New Moon, and I should not fail to sit with the king to eat. But let me go, that I may hide in the field until the third day at evening. ⁶If your father misses me at all, then say, ‘David earnestly asked permission of me that he might run over to Bethlehem, his city, for there is a yearly sacrifice there for all the family.’ ⁷If he says thus: ‘It is well,’ your servant will be safe. But if he is very angry, be sure that evil is determined by him. ⁸Therefore you shall deal kindly with your servant, for you have brought your servant into a covenant of the LORD with you. Nevertheless, if there is iniquity in me, kill me yourself...*” ⁹Jonathan said, “*Far be it from you! For if I knew certainly that evil was determined by my father to come upon you, then would I not tell you?*” (1 Sam. 20:4-9)

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⁵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 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⁶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 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⁷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⁸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 ⁹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삼상 20:4-9)

- B. **David’s plan:** David’s plan was designed to expose Saul’s true intentions. The plan safeguarded David and avoided any use of force, though it required that Jonathan lie to his father (20:5-7).

다윗의 계획: 다윗의 계획은 사울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다윗에게 안전하면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다 (20:5-7).

- C. **Deal kindly with your servant:** David reminded Jonathan that he had made a covenant with David and asked him be faithful to him in executing their plan (20:8). Perhaps David had doubts about his loyalty. However, Jonathan, next in line to be king, promised to protect David in this plan.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과 언약을 맺었음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며, 이 계획을 잘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20:8). 아마도 다윗은 요나단의 충성됨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왕위 계승 1 순위였던 요나단은 이 계획에서 다윗을 보호해줄 것을 약속했다.

- D. **Kill me:** If David was guilty of treason against the king, then the covenant should be cancelled.

나를 죽이라: 만일 다윗이 왕에게 반역하는 죄악을 범했다면, 이 언약은 취소되어야 했다.

III. JONATHAN’S PROMISE TO GIVE DAVID INFORMATION ABOUT SAUL (1 SAM. 20:10-17)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에 대해 알려줄 것을 약속함 (삼상 20:10-17)

- A. Jonathan with David shared his plan to give him information about Saul (20:10-13).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려줄지를 다윗에게 말했다 (20:10-13).

¹⁰Then David said to Jonathan, “Who will tell me, or what if your father answers you roughly?” ¹¹Jonathan said to David, “Come, let us go out into the field.” So both of them went out into the field. ¹²Jonathan said to David: “The LORD God of Israel is witness! When I have sounded out my father sometime tomorrow, or the third day...if it pleases my father to do you evil, then I will report it to you and send you away, that you may go in safety. (1 Sam. 20:11-12)

¹⁰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¹¹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¹²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삼상 20:10-12)

- B. **If Saul is planning evil:** Jonathan promised to report any negative plans that Saul revealed to him. If Saul had planned evil, the risks for executing this plan would be high for Jonathan and David.

만일 사울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요나단은 사울에게서 어떤 부정적인 계획이라도 알게 되면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사울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요나단과 다윗에게는 이 계획을 시행하기에는 위험이 컸다.

- C. Jonathan reaffirmed his covenant with David, asking David to protect his family (20:14-17).

요나단은 다윗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4-17).

¹⁴And you shall not only show me the kindness of the LORD while I still live, that I may not die; ¹⁵but you shall not cut off your kindness from my house forever, no, not when the LORD has cut off every one of the enemies of David... ¹⁶Jonathan made a covenant with the house of David, saying, “Let the LORD require it at the hand of David’s enemies.” ¹⁷Now Jonathan again caused David to vow, because he loved him; for he loved him as he loved his own soul. (1 Sam. 20:14-17)

¹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¹⁵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¹⁶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¹⁷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삼상 20:14-17)

- D. **Jonathan’s request of David:** Initially David asked Jonathan to protect him when Jonathan executed their plan with Saul (20:8). Now the roles are reversed as Jonathan asks David to promise to protect him and his descendants in the purges that occur when a new king takes office (20:14-15).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것: 처음에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나단이 사울에 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다윗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20:8).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새로운 왕이 되고 숙청을 시행할 때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보호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20:14-15).

- E. **When the LORD cuts off David’s enemies:** Jonathan recognized the coming kingship of David and that the Lord would remove his enemies in due time, including the Philistines and Saul (20:15).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요나단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과, 주께서 때가 되면 블레셋과 사울을 포함한 다윗의 대적들을 제거해버리실 것을 알고 있었다 (20:15).

- F. **Leadership lesson:** During this time, Jonathan had more faith in God's promises for David than David had for his own life. Sometimes we believe God's promise for others more than for our life.

리더십 강의: 이 때에, 요나단은 다윗보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있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있기도 한다.

- G. **At the hand of David's enemies:** May the Lord punish any of Jonathan's descendants who make themselves an enemy of David by seeking to overthrow David or his descendants in the future.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이다: 요나단의 자손 중에서 미래에 다윗이나 다윗의 자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며 다윗의 대적이 되는 자들을 주께서 처벌하시길 원합니다.

- H. **Jonathan's love:** Jonathan's motivation of this political covenant was genuine love for David.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이 이 정치적인 언약을 맺은 것은 다윗을 향한 진실한 사랑 때문이었다.

- I. **Jonathan caused David to vow:** Jonathan asked David to solemnly renew his vow to Jonathan's house or family line (20:17). He did this because he was convinced that David would be king.

요나단이 다윗이 다시 맹세를 하게 하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가 요나단의 집과 가족에 대해 맹세한 것을 다시 한 번 엄숙하게 맹세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7).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 J. Jonathan and David kept their promises. David showed kindness to Jonathan's son, Mephibosheth, by giving him his father's land and a place in David's court (2 Sam 9:1-13; 16:1-4; 19:25-30; 21:7). David took initiative in this by asking, "Is there anybody from Jonathan's house?" (2 Sam. 9:1)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의 약속을 지켰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땅을 주고 다윗의 궁정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삼하 9:1-13; 16:1-4; 19:25-30; 21:7). 다윗은 솔선해서 이 일을 행하며 물었다, "요나단의 집에 속한 이가 있느냐?" (삼하 9:1).

¹David said, "Is there still anyone who is left of the house of Saul, that I may show him kindness for Jonathan's sake?"...⁷David said to him, "Do not fear, for I will surely show you kindness for Jonathan your father's sake, and will restore to you all the land of Saul your grandfather..."¹³ So Mephibosheth dwelt in Jerusalem, for he ate continually at the king's table. (2 Sam. 9:1-13)

¹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⁷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¹³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밭을 다 절터라 (삼하 9:1-13)

IV. JONATHAN'S PLAN TO GIVE DAVID INFORMATION (1 SAM. 20:18-23)

다윗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요나단의 계획 (삼상 20:18-23)

- A. Jonathan gave David the details about how he would pass the vital information to him (20:18-23). Many in the court would have been paying close attention to Prince Jonathan and looking for David. Secrecy was of the greatest importance since David's life depended on it.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가 어떻게 다윗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줄 지를 설명했다 (20:18-23). 궁정의 많은 이들이 왕자인 요나단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이고, 다윗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비밀을 잘 지키는 것은 다윗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18 Then Jonathan said to David, “Tomorrow is the New Moon; and you will be missed, because your seat will be empty. 19 And when you have stayed three days, go down quickly and come to the place where you hid on the day of the deed; and remain by the stone Ezel. 20 Then I will shoot three arrows to the side, as though I shot at a target; 21 and there I will send a lad, saying, ‘Go, find the arrows.’ If I expressly say to the lad, ‘Look, the arrows are on this side of you; get them and come’—then, as the LORD lives, there is safety for you and no harm. 22 But if I say thus to the young man, ‘Look, the arrows are beyond you’—go your way, for the LORD has sent you away. 23 As for the matter which you and I have spoken of...the LORD be between you and me forever.” (1 Sam. 20:18-23)

18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19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20 내가 과녁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21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22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23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삼상 20:18-23)

- B. **Your seat will be empty:** Jonathan had to give an excuse for David’s absence from the meal to determine from Saul’s reaction whether he meant to do harm to David.

네 자리가 비므로: 요나단은 다윗이 식사에 함께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으로 사울이 다윗을 해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 C. **I will shoot three arrows:** Jonathan brought a lad with him to alleviate suspicion. He was to shoot three arrows near the stone where David was hiding in the field to signal if David was safe.

내가 화살 셋을 쏘고: 요나단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다. 그는 다윗이 들판에 숨은 곳 근처의 바위에 화살을 세 발 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윗이 안전할지를 알려주려 했다.

- D. **The Lord has sent you away:** We see Jonathan’s spiritual interpretation of their separation. Jonathan reminded David that the Lord was overseeing the relationship that existed between them.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는 요나단이 그들의 이별에 대해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지켜보고 계심을 상기시켜줬다.

- E. **The Lord be between us:** Jonathan called on the Lord to witness the commitments they made and to intervene in their lives accordingly.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느니라: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맺은 약속의 증인이 되어주시며, 이에 따라 그들에 삶에 개입해주시기를 구했다.

V. WHY DAVID MISSED THE FEAST (1 SAM. 20:24-29)

다윗은 왜 절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삼상 20:24-29)

- A. Jonathan gave a dishonest reason to Saul as to why David was missing feast (20:24-29).

요나단은 다윗이 절기에 오지 않은 이유를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20:24-29).

²⁴*David hid in the field. And when the New Moon had come, the king sat down to eat the feast. ²⁵Now the king sat on his seat, as at other times, on a seat by the wall. And Jonathan arose, and Abner sat by Saul's side, but David's place was empty. ²⁶Nevertheless Saul did not say anything that day, for he thought, "Something has happened to him; he is unclean, surely he is unclean." ²⁷And it happened the next day, the second day of the month, that David's place was empty. Saul said to Jonathan his son, "Why has the son of Jesse not come to eat, either yesterday or today?" ²⁸So Jonathan answered Saul, "David earnestly asked permission of me to go to Bethlehem. ²⁹And he said, 'Please let me go, for our family has a sacrifice in the city, and my brother has commanded me to be there...please let me get away and see my brothers.'" (1 Sam. 20:24-29)*

²⁴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²⁵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²⁶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녕히 부정한가보다 하였음이니 ²⁷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²⁸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²⁹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삼상 20:24-29)

- B. *First day of the New Moon:* At the first of each month a three-day feast occurred (Num. 28:11-15).

초하루: 매 달의 첫 번째 날은 3 일 동안의 절기로 지켰다 (민 28:11-15).

- C. *Saul said nothing:* Saul was not concerned by David's absence from the meal on the first day. Saul assumed he must have become accidentally unclean for it, but would be clean the next evening.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울은 첫째 날에는 다윗이 빠진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이 실수로 부정해졌을 것이라 생각했고, 다음 날은 정결해져서 나오겠거니 생각했다.

- D. *Jonathan's lie:* Jonathan lied as David requested him to do (20:6).

요나단의 거짓말: 요나단은 다윗이 부탁한대로 거짓말을 했다 (20:6).

VI. SAUL'S ANGER AT JONATHAN (1 SAM. 20:30-34)

요나단을 향한 사울의 분노 (삼상 20:30-34)

- A. Saul was very angry that Jonathan chose David over him (20:30-34).

사울은 요나단이 사울 자신 대신 다윗을 택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20:30-34).

³⁰*Then Saul's anger was aroused against Jonathan, and he said to him, "You son of a perverse, rebellious woman! Do I not know that you have chosen the son of Jesse to your own shame...?" ³¹As long as the son of Jesse lives on the earth, you shall not be established, nor your kingdom. Now therefore, send and bring him to me, for he shall surely die." ³²Jonathan answered Saul his father, and said to him, "Why should he be killed? What has he done?" ³³Then Saul cast a spear at him to kill him, by which Jonathan knew that it*

was determined by his father to kill David.

³⁴So Jonathan arose from the table in fierce anger and ate no food the second day of the month, for he was grieved for David, because his father had treated him shamefully. (1 Sam. 20:30-34)

³⁰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별거벗은 수치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³¹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³²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³³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³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삼상 20:30-34)

- B. **Saul's anger:** Saul accused Jonathan of helping David to destroy the family dynasty.

사울의 분노: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이 왕가를 무너뜨리는 것을 돕고 있다고 정죄했다.

- C. **David shall surely die:** The king warned Jonathan that he would lose his right to the kingship.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은 요나단이 왕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D. **Saul cast a spear at him to kill him:** Since Jonathan chose to identify with David, Saul treated him like David, throwing a spear at him. After this, Jonathan knew that Saul determined to kill David.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기로 선택했기에, 사울은 그를 다윗처럼 대하며 그에게 단창을 던졌다. 이로 인해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게 되었다.

- E. **Jonathan was angry:** Jonathan left the room in anger and fasted that day. He was grieved for David's sake because of his father's shameful treatment of David.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요나단은 분노하며 방을 떠났고, 그날 금식을 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 수치스럽게 대하는 것으로 인해, 다윗에 대해 근심했다.

- F. **Leadership lesson:** Jonathan paid a heavy price for standing for truth and the relationships associated with it. He showed his loyalty by resisting Saul's lures as he stood with David.

리더십 강의: 요나단은 진리의 편에 선 것과, 그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비싼 값을 치렀다. 그는 사울의 유혹에 대해 다윗의 편을 들며 이겨냄으로 자신의 충성됨을 보였다.

VII. JONATHAN AND DAVID'S COMMITMENT AND FAREWELL (1 SAM. 20:35-42)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그리고 이별 (삼상 20:35-42)

- A. Jonathan fulfilled his commitment to David (20:35-42). With a heavy heart he left the royal court to go to the field, having to be secretive in reporting back to David.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약속을 지켜냈다 (20:35-42).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궁정을 떠나서 다윗에게 이를 조용히 알리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다.

³⁵So it was, in the morning, that Jonathan went into the field at the time appointed with David, and a little lad was with him. ³⁶Then he said to his lad, “Now run, find the arrows which I shoot.” As the lad ran, he shot an arrow beyond him. ³⁷When the lad had come to the place where the arrow was which Jonathan had shot, Jonathan cried out after the lad and said, “Is not the arrow beyond you?” ³⁸And Jonathan cried out after the lad, “Make haste, hurry, do not delay!” So Jonathan’s lad gathered up the arrows and came back... ³⁹But the lad did not know anything... ⁴⁰Then Jonathan gave his weapons to his lad, and said to him, “Go, carry them to the city.”

⁴¹As soon as the lad had gone, David arose from a place toward the south, fell on his face to the ground, and bowed down three times. And they kissed one another; and they wept together, but David more so. ⁴²Then Jonathan said to David, “Go in peace, since we have both sworn in the name of the LORD, saying, ‘May the LORD be between you and me, and between your descendants and my descendants, forever.’” So he [David] arose and departed... (1 Sam. 20:35-42)

³⁵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³⁶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³⁷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³⁸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달음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³⁹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⁴⁰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⁴¹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⁴²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삼상 20:35-42)

B. **David’s response:** David came out of hiding and fell to the ground. The men wept together.

다윗의 반응: 다윗은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 땅에 엎드렸다. 둘은 함께 울었다.

C. **Jonathan’s response:** He told David to go in peace, since they had both made a covenant together. Jonathan and David briefly met one more time at Horesh in the wilderness of Ziph (23:15-18).

요나단의 반응: 그는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서로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나단과 다윗은 십 광야 수풀에서 한 번 더 짧게 만났다 (23:15-28).